아이폰에서 PDF를 인쇄하지 않고 서명하는 방법

프린터도 계정도 구독도 없이 아이폰에서 PDF에 서명하는 방법과, 그 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September 28, 2026 · 생산성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blog/how-to-sign-a-pdf-on-iphone-without-printing



아이폰에서 PDF에 서명하는 데 프린터는 필요 없습니다. 서명 앱에서 파일을 열고 손가락으로 서명을 한 번 그린 뒤 위치를 맞추고 내보내면 됩니다. Scan to PDF는 이 과정을 iOS 15.5 이상에서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며, 무료이고 계정도 구독도 필요 없고 내보낸 파일에 워터마크도 넣지 않습니다.

공시: *AppStoryo*는 *Scan to PDF*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며 실제 대안 앱을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인쇄하고 서명한 뒤 다시 스캔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대체 수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문서 품질이 깎입니다. Scan to PDF는 App Store에서 무료, Google Play에서는 Document Scanner PDF라는 이름.

아이폰에서 PDF를 인쇄하지 않고 어떻게 서명하나요?

PDF를 열고 서명을 한 번 그린 다음 위치를 잡고 새 파일로 내보냅니다. Scan to PDF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파일 앱에서 문서를 열거나 종이 원본을 카메라로 스캔하고, 서명 도구를 누르고,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로 그리고, 서명을 제자리로 끌어다 놓고 내보냅니다. 서명은 처음 한 번으로 저장되므로 두 번째 문서는 십오 초쯤 걸립니다.

애플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 설명서는 미리보기와 마크업에서 양식을 채우고 문서에 서명하고 서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한 장짜리 동의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이는 그날 오후 네 번째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도장, 날짜, 쪽 번호, 내보내기 암호가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을 덮어쓰지 말고 새 파일로 내보내십시오.

2026년에도 인쇄하고 서명하고 다시 스캔하는 방식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이를 한 번 거칠 때마다 PDF가 이미 갖고 있던 정보가 사라집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PDF에는 진짜 텍스트 층이 있는데, 인쇄해서 종이를 다시 찍으면 그 글자가 화소로 바뀌고 아무도 검색할 수 없는 파일만 남습니다. 애플의 PDFKit 문서는 PDF를 선택 가능한 텍스트와 주석을 갖춘 구조화된 문서로 설명하며, 문서의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이는 새어 나가기도 합니다. 사무실 서류함에 놓인 인쇄된 계약서는 옆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Scan to PDF에서는 문서가 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App Store 페이지의 개인정보 표시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앱은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일상적인 상황 대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미국 법전 제15편 7001조에 편입된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록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 7월 23일자 규정(EU) 제910/2014호가 같은 원칙을 두고 단순 서명 위의 등급을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그 등급입니다. 그린 서명은 단순 전자서명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학교 서류, 배송 확인서, 청구서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적격 전자서명은 아닙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적격 전자서명은 감독을 받는 제공자가 발급한 적격 인증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일부 가족법 서류, 특정 법원 제출 문서는 전자서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서명한 PDF가 나중에 변조되는 것을 어떻게 막나요?

강도 순으로 세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서명을 페이지에 병합해 떼어낼 수 있는 층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내보내는 파일을 암호화하십시오. Scan to PDF는 NIST가 FIPS 197로 표준화한 AES-256을 쓰므로 파일을 열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인증서로 서명하면 내용이 키에 묶여, 한 바이트만 바뀌어도 검증이 실패합니다.

2026년 7월 7일 공개된 Scan to PDF 2.0은 Face ID로 보호되는 인증서 서명, AES-256 내보내기, 감사 추적 요약 페이지, 베이츠 번호, PDF/A-2b 보존용 내보내기를 더했습니다. Docusign의 App Store 페이지도 종이 위의 필적만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기록해야 한다는 같은 주장을 폅니다.

> 누가 언제 어디서 서명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완전한 감사 추적이 있습니다.

Scan to PDF는 마크업이 못 하는 무엇을 하나요?

마크업은 페이지 위에 그리는 기능입니다. Scan to PDF는 그 페이지를 휴대폰을 떠나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문서로 다룹니다. 실제 차이는 PAID나 CONFIDENTIAL 같은 도장, 모든 쪽의 날짜 도장, 한 묶음 전체에 붙는 베이츠 번호, 자동 생성 표지가 딸린 증거 라벨, 오프라인 OCR, 끌어서 치울 수 있는 검은 사각형이 아니라 내보내기에 구워 넣는 가림 처리, 그리고 Face ID로 잠긴 로컬 보관함입니다.

스캔도 합니다. 서명할 서류가 종이로 왔다면 같은 앱이 가장자리 인식, 원근 보정, 여러 쪽 일괄 처리, 대비 복원을 맡고 이어서 서명과 내보내기까지 끝냅니다. 용량은 92.7 MB이고 iOS 15.5 이상에서 130개 기기 모델을 지원하며 44개 언어로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iOS용 Scan to PDF 내려받기.

실제로는 어떤 서명 앱을 써야 하나요?

아래 세 앱은 2026년 9월 16일에 App Store의 실제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나온 앱은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무료 범위에서 무엇까지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어도비 환경이 필요하면 Acrobat Reader

- Adobe Inc., 2026년 9월 9일자 26.08.01 버전, 평가 652,515건에 평균 4.65.
- 페이지에는 채우기와 서명이 앱 안에서 무료라고 적혀 있고, 편집과 OCR, 암호 보호는 7일 체험 뒤 구독이 필요합니다.
- 용량이 521.4 MB이고 iOS 18.3이 있어야 해서 오래된 아이폰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서명해야 하면 Docusign

- Docusign, 2026년 8월 28일자 3.47.3 버전, 평가 826,730건에 평균 4.87, 90.8 MB, iOS 17.0 이상.
- 페이지는 모든 당사자의 무제한 무료 서명과 감사 추적, ISO 27001 준수를 내세웁니다. 서명 요청 발송은 유료 요금제입니다.
- 쌍방이 서명하는 계약에는 이쪽이 맞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Scan to PDF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매주 서명한다면 Signeasy

- Glykka LLC, 2026년 9월 12일자 20.0.0 버전, 평가 34,065건에 평균 4.85, 259.5 MB, iOS 16.0 이상.
- 페이지는 180개국에서의 사용과 ESIGN, UETA, eIDAS, HIPAA, SOC 2 준수, 그리고 서식과 공유 가능한 서명 링크를 언급합니다.
- 내려받기와 7일 체험은 무료이고 이후 사용은 구독입니다.

문서가 기기를 떠나면 안 된다면 Scan to PDF

- 무료, 계정 없음, 구독 없음, 워터마크 없음, 광고 없음. 92.7 MB, iOS 15.5 이상.
- 스캔과 OCR, 가림 처리, 서명, AES-256 암호화, PDF/A-2b 내보내기가 모두 기기에서 돌아가고, 네 앱 가운데 iOS 15나 16에 설치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 클라우드가 없어 두 번째 서명자에게 문서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판은 Google Play에 Document Scanner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스토어의 이름이 다릅니다. iOS에서는 Scan to PDF: Sign & Redact, Google Play에서는 Document Scanner PDF입니다.

Scan to PDF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이 서명해야 할 때입니다. 클라우드도 메일 발송도 서명 순서도 없으니 양 당사자 계약에는 Docusign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특정 플랫폼을 정해 두었다면 그것을 쓰십시오. 유럽연합 규정상 적격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문서라면 스스로 발급한 인증서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한계가 둘 있습니다. App Store에 아직 평가가 없어 다수의 판단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므로 서버 쪽 사본도 없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파일 앱으로 내보내십시오.

아이폰에서 PDF 서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아이폰에서 PDF에 서명하려면 무엇을 구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애플의 미리보기와 마크업은 그린 서명을 무료로 PDF에 넣어 주고, Scan to PDF도 무료이며 구독도 워터마크도 없습니다. 다른 앱의 유료 등급이 여는 것은 대체로 다른 서명자에게 문서를 보내는 기능이지 서명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아이폰에서 서명할 수 있나요?

앱이 오프라인으로 동작한다면 가능합니다. Scan to PDF는 스캔과 OCR, 가림 처리, 서명, 내보내기를 모두 기기에서 처리하므로 비행기든 지하실이든 상관없습니다. Docusign처럼 클라우드를 전제로 한 서비스는 서명 사실을 기록하려면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린 서명과 디지털 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린 서명은 손으로 쓴 필적을 페이지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파일 내용을 키에 묶는 암호 연산이라 나중에 편집하면 깨집니다. Scan to PDF 2.0은 둘 다 지원하며 인증서는 Face ID로 보호됩니다.

저장해 둔 서명 사진이면 충분한가요?

일상적인 서류라면 대개 충분하고, 대부분의 앱이 처음 그린 뒤 그대로 보관합니다. 약점은 이미지가 한 문서에서 떼어 다른 문서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이며, 그래서 필적의 모양보다 암호화와 인증서가 더 중요합니다.

서명한 PDF에 암호를 걸려면 어떻게 하나요?

암호화해서 내보내십시오. Scan to PDF는 내보낼 때 AES-256 암호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NIST가 FIPS 197로 표준화한 방식입니다. 암호는 파일과 다른 경로로 전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보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받은 PDF 말고 스캔한 종이 문서에도 서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카메라로 종이를 스캔하고 가장자리 인식과 원근 보정으로 반듯하게 만든 뒤 그 결과에 서명하십시오. 두 작업을 한 앱에서 끝내면 이미지를 내보내 다른 편집기에서 품질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나 경비 서류에도 아이폰 서명을 쓸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가능하고, 같은 앱이 영수증 묶음에 쪽 번호와 날짜 도장을 넣어 줍니다. 보관 형식 요구는 과세 당국마다 다르니 보존용 파일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can to PDF는 PDF/A-2b로 내보냅니다.

받는 쪽에서 서명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규정(EU) 제910/2014호의 적격 전자서명을 원한다면 감독받는 신뢰 서비스 제공자 없이는 어떤 소비자용 앱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명 시점의 증거만 원한다면 인증서로 서명해 내보낸 파일로 대개 해결됩니다.

완성된 문서와 당신 사이를 막는 것이 프린터뿐이라면 이것은 오 분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App Store에서 Scan to PDF 받기 또는 Google Play의 Document Scanner PDF.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아이폰에서 *PDF*를 인쇄하지 않고 서명하는 방법.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blog/how-to-sign-a-pdf-on-iphone-without-printing

© 2026 lapnito.cz s.r.o.